

“경찰·검찰 못 믿어” 드라마 속 ‘홍길동’들

‘마녀의 법정’·‘변혁의 사랑’ 등

소재·캐릭터 다양 ... 현실감에 공감

공권력 벗어난 히어로 활약 눈길

“경찰, 경찰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드라마를 파고들었다. 동시에 경찰, 검찰을 믿지 못해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는 각종 ‘홍길동’들이 그려지고 있다.

대형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최고 엘리트들이 연루된 공권력 비위가 속속 적발되는 현실과 맞물려 드라마가 검찰, 경찰 조직을 꼬집고 있다. 경찰과 검찰을 믿지 못하면 ‘홍길동’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 특검에서 증거 사라지고, 경찰이 피해자 위험에 내몰고

KBS 2TV 월화극 ‘마녀의 법정’에서는 총리, 시장, 대학총장, 부장검사 등이 연루된 대형 비리를 캐라고 특검이 가동됐는데, 특검 안에서 핵심증거가 사라졌다. 특검 검사가 그 증거를 빼돌린 것. 그 이전에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정보를 흘리며 후배들의 수사를 방해했다.

OCN 주말극 ‘블랙’에서는 경찰 동료들이 몇 번이고 사선을 넘나들며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데 버젓이 한 사무실을 쓰는 동료 경찰이 매수돼 그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에게 제보했다. 급기야는 납치당해 살해당할뻔한다 탈출한 피해자를 다시 납치범의 손에 넘기기도 했다.

둘 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tvN 주말극 ‘변혁의 사랑’에서도 재벌가에 일일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재벌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검사가 등장하고, 지난 16일 끝난 SBS TV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는 검사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수사가 안 풀리자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렸다.

이 같은 상황은 현실과 맞물린다. 전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벌어지더니, 현직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드라마와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마녀의 법정’의 강병택 KBS CP는 29일 “우리 사회의 현실이 공권력의 비리를 드라마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KBS 2TV ‘마녀의 법정’·‘매드독’·tvN ‘변혁의 사랑’ (왼쪽부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CP는 “모든 게 음모론으로 보이고 공권력을 믿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분위기가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너무 많지 않았나”면서 “앞으로는 드라마에서 그런 비리 캐릭터를 안 봐도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대신 나선 ‘홍길동’들 드라마 속 ‘홍길동’은 다양한 모습이다.

KBS 2TV 수목극 ‘매드독’은 재벌과 수사기관이 결탁한 속에서 보형사가 사건을 파헤치는 사조적 ‘매드독’의 활약상을 그린다. 처음에는 ‘매드독’ 구성원들도 보형회사 조사팀 일원이었지만, 조직과 사회 시스템이 썩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것을 보고 사조직을 결성해 ‘홍길동’이 됐다.

‘매드독’ 대장은 가족의 죽음과 연관된 보험 사건 사건을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믿었던 경찰도 매수돼 배신하고, 검찰총장마저 얼마든지 진실을 놓고 거래가 가능한 인물로 그려진다. ‘매드독’은 이들이 던져 놓은 장애풀을 아슬아슬하게 뛰어넘으며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

‘블랙’에서는 무려 저승사자가 ‘홍길동’이 됐다. 저승사자는 재벌이 돈으로 막아놓고 조작한 일들을 경찰이 밝혀내지 못할 때마다 나서서 사건을 해결해준다. 저승사자가 SNS에 결정적 증거를 뿌리고, 초능

력을 발휘해 경찰의 손이 닿기 전에 한발 앞서 범인을 잡는다.

‘마녀의 법정’에서는 특검이 열리기 전, 검찰 조직을 믿지 못한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와 은밀하게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지난 5일 끝난 MBC TV ‘도둑놈 도둑님’에서도 변호사 출신 도둑 ‘J’가 경찰과 검찰 대신 진일파의 뿌리 깊은 악행과 비위를 파헤쳤고, 16일 끝난 tvN ‘부암동 복수자들’은 힘없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성희롱 교장을 혼내주고 교육감 선거 비리를 파헤쳐 세상에 알렸다.

또 지난 7월 끝난 MBC TV ‘파수꾼’은 아예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모여서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 ‘파수꾼’을 만들어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OCN이 다음달 16일 선보이는 새 주말극 ‘나쁜 녀석들 - 악의 도시’는 부패한 권력을 악으로 응징하는 자들의 이야기다. 검사, 전직 조직 폭력배, 남의 실행을 대신 살고 있는 조폭 조직원 등이 악의 카르텔을 끊기 위해 모여며 이야기가 시작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권력층이 서로 결탁한 비리가 너무 많으니 공권력을 벗어난 히어로의 활약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발라드 여왕’ 양파 내달 새 앨범

“방송 통해 팬들과 만남 기대”

가수 양파(본명 이은진·38)가 12월 8일 새 싱글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RBW가 29일 밝혔다.

이번 싱글은 2014년 3월 발표한 싱글 ‘I. o. v. e’에 이은 신곡이다. 당시 그는 ‘I.o.v.e’를 공개하고 활동은 하지 않아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은 2012년 5월 미니앨범 ‘투게더’(Together)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양파는 이번 싱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1997년 1집 ‘애송이의 사랑’으로 데뷔한 그는 호소력 짙은 음색을 바탕으로 ‘아디오스’(Adios), ‘사랑...그게 뭐대’, ‘아디오’(A'ddio), ‘알고 싶어요’ 등의 히트곡을 냈다.

／연합뉴스



2015년 MBC TV ‘나는 가수다 3’에 출연해 변함없는 가창력으로 주목받았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뮤지컬 ‘보디가드’에서 여주인공 레이첼 역을 맡아 7월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싱어송라이터 이지형, 라디오 DJ 데뷔

내달 4일 BBS ‘밤의 창가에서’

김광석 사후 폐지 ... 22년만에 부활

싱어송라이터 이지형(39·사진)이 BBS 불교방송 라디오 ‘밤의 창가에서’를 통해 DJ로 데뷔한다.

소속사 해피로봇레코드는 이지형이 BBS 라디오 개편에 따라 12월 4일부터 평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밤의 창가에서’의 진행을 맡는다고 29일 밝혔다.

1990년대 BBS 라디오의 간판 심야 프로그램이던 ‘밤의 창가에서’는 고(故) 김광석이 1991년부터 1995년 가을까지 DJ를 맡아 인기를 모았다. 김광석이 DJ 석에서 내려온 뒤 프로그램은 막을 내렸다가 22년 만에 새롭게 청취자들과 만나게 됐다.

이지형이 진행하는 ‘밤의 창가에서’는 세상의 모든 직업을 만날 수 있는 ‘세모작’과 국내 실력과 가수들이 출연하는 ‘밤하늘의 별빛 데이트’, 이지형의 음악 이야기를 듣는 ‘이지형의 버스킹’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된다.



이지형은 토이의 객원 보컬로 활동했으며 ‘뜨거운 안녕’으로 이름을 알린 뒤 ‘산책’, ‘불의 기적’, ‘듀엣’(Duet) 등의 곡을 발표했다.

그는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더 홀 : 크리스마스’란 타이틀로 연극과 콘서트를 합한 음악극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최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	50 창사 56주년 특집 MBC와 좋은친구들 2부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UHD 한식	50 내 남자의 비밀(재)		00 애니컬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오지의 마법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가드	50 생생정보 스페셜	1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팔도방송 스페셜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25 독?독! 키즈쿨 40 보글야 사랑해	00 뉴스브리핑
3	00 도전! K-스타트업 2017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KBC 열린TV 시청자 세상 30 월드 탐 탐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사람 35 UHD 한식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토이캡 15 터닝메카드 R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클로브24 55 매드독(재)	3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스페셜		50 전지적 참견 시점	
10	35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이판사판
11	05 평창 패럴림픽 G-100 특집 한중일 장애인 예술축제 나를 넘어 우리로	1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 아시아의 향	10 자기야-백년손님
12	25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재)	4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동일의 길 <북한의 어로공>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똑막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댕 유치원 1~2 08:30 공통탐험대 고고다이너(재) 08:45 수확이 아홉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30 롤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물렛과 허브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겨울기획 동고동락 3편 - 대박마을 할매들의 겨울나기>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 (기생충학자 이순형)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확이 아홉(재) 16:45 덩동댕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똑막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겨울채비>	20:50 세계테마기행 <꿈꾸던 겨울 핀란드 - 유유자적 헬싱키> 21:30 한국기행 <김치 한 그릇 - 4부 가문의 비법> 21:50 과학 다큐 버온 <인공지능 1부 - 지능 만들기> 22:45 다문화 고부열전 <집안일 도맡아 하는 시어머니 고마웠습니다 며느리> 23:35 불랑시니클럽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자기만당에 빠지지 않도록 무리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60년생 자연되어 왔던 일의 불교가 트이리라. 72년생 지금까지야 말로 감금하게 보완하기에 지극히 적절한 시기이다. 84년생 예상했던 대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50, 77	午	42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54년생 현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 66년생 수고로움이 보인다. 78년생 선택 여하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90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적절이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59, 37
丑	49년생 그 동안 고통어 왔던 것에 대한 결실이 앞차니 기쁨 마음 으로 수확하는 이치이다. 61년생 말이 씨가 될 수도 있느니라. 73년생 시적이 반이니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85년생 양자를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6, 39	未	43년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55년생 눈 먼 거북이가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67년생 총동적인 판단 하에 기인 한다면 후회가 따른다. 79년생 세부적인 내용까지 갖춰야겠다. 91년생 행운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6, 65
寅	50년생 절제할 줄 알아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리라. 62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74년생 이 루기에 아직 많은 노력을 요하므로 가열 차게 경주할지이다. 86년생 별 화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65, 15	申	44년생 조금만 버터 낸다면 견고해질 것이다. 56년생 힘든 고비 가 남아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 68년생 물질적인 면은 양호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80년생 한 번 결정되면 번복하기 힘들니 장고한 후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8, 24
卯	51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길이 정해질 것이다. 63년생 기세가 등등하니 웬만해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 하겠다. 75년생 중요한 얘기를 우연히 타인으로부터 듣게 되리라. 87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행운의 숫자 : 20, 55	酉	45년생 정황함보다는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57년생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69년생 판세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81년생 첫 눈에 마음에 든다고 길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자. 행운의 숫자 : 21, 56
辰	52년생 맹점이 보완되었을 때 비로소 성사된다는 것을 알자. 64년생 교열이 가기 전에 예비 점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안전하다. 76년생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니라. 88년생 운신의 폭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5, 71	戌	46년생 취지는 좋으나 실행의 방안에 문제가 있다. 58년생 참신한 기법이 성과의 가치를 드높이게 되는 국량이로다. 70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82년생 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5, 60
巳	53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니라. 65년생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77년생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89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4, 43	亥	47년생 예방만이 안전을 도모하리라. 59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71년생 설계 정답한다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83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실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자. 행운의 숫자 : 43, 2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